

51회 졸업생에게 드리는 말씀

오늘 영중중학교 51회 졸업생, 스물한 명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중학교 생활을, 노심초사하시면서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영중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총동문회 선배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년간 학생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해주신 () 교감 선생님과 () 3학년 담임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중중학교 문을 나서는 스물 한 명의 졸업생 여러분!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였지만, 참으로 소중한 인연과 그리운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맛있게 먹던 영중의 급식, 아침마다 현관에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선생님들, 학생자치회가 주관한 사제동행 물총싸움, 이태원 클래스 촬영지와 연극을 함께 보며 추억을 쌓은 대학로 현장체험학습 바람새마을,스카이워크,선사인랜드를 다녀와서 2박3일 동안 늦은 밤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던 숙박형 체험학습 학생자치회와 선생님들이 함께 한 교과융합의 날 행사 부모님들이 정성으로 구워주신 삼겹살을 먹고 개기월식을 보며 마냥 즐거워했던 영중한마당 이 모든 기억들이 여러분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제는 추억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졸업에 즈음하여 영중 선생님들의 소망을 담아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을 이기기 위한 일을 하거나 남이 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 재미도 보람도 줄어듭니다.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가는 성장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 오늘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이 행복하기 어렵고, 현재에 충실하지 않으면 미래도 행복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신만의 빛깔로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마다의 빛깔을 온전히 빛낼 수 있는 원석들입니다. 다양성의 시대에 남들과 같은 색을 내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의 장점을 살려 노력한다면 더 나은 미래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졸업을 하는 영중 스물 한 명의 보석들, (이름 개별 이름 부르기) 여러분들의 졸업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슴 뛰는 일을, 자신만의 빛깔로 매일매일 충실히 가꿔나갈 수 있도록, 영중의 선생님 모두는 항상 응원합니다. 살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을 때, 영중에서의 추억이 못 견디게 그리울 때, 잠시 휴식이 필요할 때 우리 영중중학교를 들려주세요. 영중의 모든 선생님들은 파이란 운동장처럼 반갑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맞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과 내빈 여러분, 졸업생들과 3년간 동고동락해 주신 선생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사랑합니다!